

##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 부대찌개, 너의 정체는?

부대찌개는 과연 한국의 전통음식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한국인들이 당황스러워 한다.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찌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의 역사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입기가 며칠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는 2008년 대통령 당선 직후 고향인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낸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관심의 대상되었다. 개주열한 복장으로 와이키키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까지 전 세계에 소개될 정도였다. 심지어 그가 골프를 치는 동안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까지 화제가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와이의 대표적인 대중 음식인 ‘스팸무스비’였다.

스팸무스비는 밥 위에 간장 소스를 발라 구운 스팸 한 조각을 올리고 김으로 감싼 음식이다. 얼핏 보면 일본 음식 같지만 그 내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양념한’(spiced)과 ‘햄’(ham)의 합성어인 스팸(SPAM)은 1937년 미국의 호멜이라는 식품 회사에서 돼지고기 어깨살을 처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투식량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것을 지금은 하와이 사람들이 가

장 즐겨 먹는다.

하와이는 전 세계에서 1인당 스팸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연간 7백만 개 이상을 소비한다. 매년 4월이면 ‘스팸 잼’이라는 축제가 열릴 정도로 스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하와이 주민들이 스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태평양함대가 주둔하면서부터다. 당시 미군에게 배급되던 식량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스팸이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스팸이 확산됐다.

하와이 이주민중 단일국가로는 필리핀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이민자들이다. 일본인은 하와이 전체 인구의 약 13퍼센트에 이른다. 결국 스팸무스비는 스팸을 좋아하는 폴리네시아인과 필리핀인 그리고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 등 하와이를 구성하는 3대 민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심지어 이름조차 스팸이라는 제품명과 주먹밥을 뜻하는 일본어 ‘무스비’의 합성어다. 하와이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식이 오늘날 하와이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은 그 자체로 하와이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도 되는 인물의 공개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스팸무스비가 상징하는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은 오바마

의 삶과 닮은 구석이 많다. 그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 흑인이고 어머니는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이다. 인종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그는 하와이에서 성장 후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거쳐 시카고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그가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알고도 스팸무스비를 먹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포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국적 가치를 지향하겠다는 나뉼의 선언이었던 셈이다.

세상 모든 음식의 서사는 원형과 전통을 내포한다. 원형은 신화나 종교처럼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이에 반해 전통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한국 음식의 원형은 쌀을 비롯한 곡물을 재분하지 않고 낱알 그대로를 익혀 먹는 밥을 중심으로 국과 찌개 그리고 발효음식 등의 찬을 곁들여 먹는 형태다. 이러한 형태는 족히 천 년 이상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식생활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국·찌개·발효음식 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고 우리는 그 변화의 결과물을 오늘날 전통이라는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음식의 가장 대표 선수 격인 김치만 해도 그렇다. 김치의 원형은 채소를 오

래 두고 먹기 위해 소금에 절이던 것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미생물에 의한 젖산발효를 발견하게 되고 조선 후기에 붉고 매운 고추와 속이 짙한 결구배추를 일본과 중국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김치가 완성됐다. 만약에 변화를 전제로 한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원형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금에 절인 채소만 먹고 살아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부대찌개의 정체성 또한 분명해진다. 찌개를 구성하는 요소에 제 아무리 햄·소시지·라면 등 이국적인 재료가 쓰였다 한들 찌개라는 원형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부대찌개는 의심할 바 없는 한국 음식이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는 단순히 공간적인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다. 수구적인 인식의 틀 속에 갇힌 한국 음식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통은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식재료와 조리법이 섞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 한국 음식의 원형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역사와 내성을 갖고 있다. 우리들 각자의 인식 속에서 한국 음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새로운 한식 세계화는 이러한 자신감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맛칼럼니스트〉

## 커피 원장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923년의 오늘, 1월 12일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진 날이다. 바로 김상옥(金相玉) 의사(義士)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이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등 조선독립을 향한 테러리즘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김상옥이란 인물의 삶 또한 불꽃이었다. 그는 아나키스트였다.

그는 1920년 사이트 총독 암살을 도모하다 발각되어 중국으로 도주해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했다. 1923년 1월초 압록강 초소에서 경비군을 죽이고 입국해 경성에 잠입한다. 1월 12일 조선단압의 본거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피범박의 아수라장, 일경(日警)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 김상옥은 매부의 집에 은신해 있었으나 3대새 뒤 발각 된다.

두순에 권총을 든 김상옥은 총격전을 벌여 다무라 형사부장을 사살하고 탈출해

## 아나키스트들을 기억하라

효제동에 은신한다. 그러나 그는 22일 결국 좁혀오는 포위망에 걸려 최후를 맞는다. 우마노 경찰부장의 지휘아래 400명의 무장경찰이 겹겹이 포위한 가운데 또다시 쌍권총으로 3시간동안 총격전을 벌인 끝에 10여명의 일경을 사살하고 최후의 탄환만이 남아 자신의 관자노리를 쏘아 자결한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2000년 개봉한 우리영화 ‘아나키스트’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약한 무장투쟁 항일비밀결사 ‘의열단’의 실화를 멋지게 그린 역사 액션물이다. 박찬욱이 각본을 쓰고 우영욱이라는 청년이 감독을 했다. 상하이 로케이션이 스케일 크게 스크린을 채우는데 모스크바대학 출신 주인공 세르게이(장동건)의 노와르 연기가 아름답다. “삶은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고 임버릇처럼 말하던 20년 대 항일 아나키스트들의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기가까지 한다. ‘죽음의 미학’이다. 이 영화는 흥행이 별로였다. DJ정부 시절 화목했던 한일관계 때문일까가 생각된다.

의열단은 만주로 피신한 투사들이 “정의를 맹렬히 실천한다”는 강령에서 이름 붙인 무장투쟁 항일비밀결사다. 신민회(新民會)가 만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멤버다. 신흥무관학교는 이동녕(李東寧)이회영(李會榮) 장유순(張裕淳)이 설립

자다. 이중 우당(友堂)이회영은 진정한 아나키스트다.

이회영 집안은 조선의 명문가다. 그는 백사 이항복의 9대손이요 고종치하 이조판서 이윤순의 아들이다. 조상은 온통 정승 판서 참판이었다. 국경원장을 지낸 이중찬은 그의 손자다. 그는 일제의 통치가 악랄해지던 1910년, 50명의 가솔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한다. 전 재산을 팔아 돈을 마련했는데 액수는 40만원이었다. 현재 가치론 600여원이다. 그는 이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조리 쓴다. 1910년부터 대동아전쟁 발발 전까지 만주일대를 무대로 벌어진 항일투쟁의 군자금은 사실상 그가 낸 것이다. 그는 자기아들도 신흥무관학교에 입교시키고 양반 아녀자들도 서민들과 함께 빨래와 청소를 시키는 등 구습을 타파하고 인권을 계몽했다.

상하이 임정에도 참여했으나 나라 없는 정부, 그 속에서조차 갑투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사상적 동반자 신재호와 함께 떠날 길이 없더라. 그는 1932년 상하이에서 여객선을 탔다가 검문에 걸려 체포된 뒤 모진고문을 받았고 결국 경찰서에서 목매 자결했다. 그의 삶은 이덕일이 쓴 ‘이회영과 젊은 그들-아나키스트가 된 조선 명문가’(2009, 역사의 아침 권2)라는 책에 드라마틱하게 서술돼 있다.

아나키스트(anarchist)는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라고 번역된다. 그들의 사상, 즉 아나키즘은 지배(archos)가 없는(an) 상태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사람이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권위 또는 권력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감정과 생활태도가 그 요체다. 사람치고 누가 남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충동이다. 1890년대 제정러시아 말기의 무장투쟁에서나 1920년대 항일독립투쟁에서나 1930년대말 스페인내전에서나 아나키스트들은 통쾌한 폭력에 의존했지만, 우당 이회영의 삶에서 알 듯 아나키스트들은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이 없는 세상을 추구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아무리 고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나키스트들이 목숨을 던지던 시대에 비하면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세상이다. 그러나 아나키즘의 본질적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다. 다가올 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고강난 세상을 다시 손보는 헌법개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과정에서 우리는 양손에 쌍권총을 들 필요는 없으되, 어느 정도 아나키스트들이 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또는 정부가 또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되려 우리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셋째, 깨끗함이다. 원칙과 현실을 중요시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처럼 여겼던 중국의 ‘관인팔법’(觀人八法)에서도 여러 덕목 중에 청렴(淸廉)을 매우 중요시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이유도 청렴한 지도자였다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판단력과 결단력이다. 국가와 조직은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훌륭한 판단력은 올바른 판단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재를 잘 가려 쓰는 용인술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현재의 모든 조직은 홀로 도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 세종의 리더십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찬란한 문화 융성을 꽃 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당쟁이 극심했던 영·정·조시대에 시행된 탕평책의 교훈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조직의 리더는 조직 원이나 국민과 소통하고 포용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 社 說

##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인상 다시 조정돼야

최근 들어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광주 지역 운전면허학원들이 수강료를 대폭 인상, 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고 50% 가까이 올린 학원도 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A운전학원은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 40만7000원이던 수강료를 58만8000원으로 44.5% (18만1000원) 인상했다. B운전학원은 43만 원에서 59만9500원으로 39.4% (16만9500원), C운전학원은 43만 원에서 58만9000원으로 37% (15만9000원), D학원은 43만 원에서 58만1000원으로 35.1% (15만1000원), E학원은 48만 5000원에서 61만5000원으로 26.8% (13만 원)씩 올렸다.

이에 대해 운전학원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강료를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새 면허시험은 장내기능시

험에 기준에 없었던 경사로 코스와 직각주차(T자 코스) 등이 추가됐다.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합격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 92.8%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이 30%로 떨어졌다.

물론 경찰청도 인상 요인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청은 기존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8만 원가량 인상은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들은 수강료를 경찰청의 예상보다 1.6배(13만 원)에서 2.3배(18만1000원)까지 올린 것이다.

운전면허학원 수강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다. 수강료는 쥐꼬리만 한 용돈을 아낀 돈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운전면허학원들이 기준도 없이 임의로 수강료를 높게 올려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인구 절벽 이어 ‘학생 절벽’ 대책 시급하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2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전남도 한때 7만 명이 넘었던 중학생 수가 올 들어 5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학생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등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학령인구를 늘릴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만6517명 선이다. 한때 26만 7248명(2007년)에 달했던 초·중·고교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일반고 신입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도(1만6154명)와 비교하면 약 1868명 정도 감소했고, 전체 중학생 수도 사상 처음으로 5만 명 이하인 4만8322명(지난해 5만1499명)으로 떨어졌다.

전남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한 때 30만 명(2004년)을 넘는 적도 있지만 이번 ‘2017~2021 중기학생배치계획’에서는 20만8050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는 2020년이면 초·중·고교 학생 수가 19만9911명으로 2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학생 절벽’ 문제는 예견된 일이 었다. ‘3포세대’(취업·결혼·출산 포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않아도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15~64세) 감소로 인구 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이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오빠, 나 학교가 가고 싶어” “너 혼자 시시때때로 독학해 봐라” “오빠, 책도 없고 연필도 없잖아,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는 깃발에 손가락으로 1, 2, 3 숫자를 써 본다. 모래에 쓴 건 다음날이면 물에 쓸려 사라지지만 깃발에 깊이 파서 쓴 건 2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바다가 공책이고, 평생 닳지 않는 내 손가락은 연필이 됐다.”

1937년 무안의 딸 부자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아 학에서 한 달 반 정도 한글을 배운 게 배움의 전부였다. 한 남자

## 할매의 시집

와 결혼해 7남매를 두었고,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면서 도 시(詩)를 쓰고 싶었다. 공부 못해 한 맺히고, 시 못 써서 한이 맺혔다. ‘한 풀고 소원 풀’ 김옥례 할머니가 퍼낸 시집 ‘나의 바다’엔 어떤 기교도, 가식도 없는 시 70여 편이 실렸다.

그녀의 일상은 모두 시가 됐다. 길에서 흙 묻은 펜촉 하나 주운 날. 수숫대 잘라 편대 자루로 삼고, 저고리 물들이고 남은 물감은 잉크가. 친구 집 바구리에 넣어 있던 잡지는 공책이 됐다. (‘길에서 주운 펜촉’)

남편에 대한 애뜻함은 또 어떤가.

‘당신의 막자 나랑 합승하게요/ 당신 나 떠나 혼자 가기 싫지요/종랏!’ 나, 당신 덕 좀 보려구요/ 당신 막자 나랑 꼭 합승하게요/ 함께 합승하면 차비 절약/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고생 모두 함께 끝낼 수 있어요/ 합승 승낙할 밉고 그리 준비할게요/’(인생의 막자’ 중)

‘팔순 할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이들이 있었다. 시 교실 참가자들이 모두 ‘애송이 방실방실 새매들’이라 살다

가 처음 주눅이 들었지만 ‘나는 시인이 되고픈개/ 시인의 꿈을 꼭 이루고 말테께!’

(‘목포 공공도서관’ 중) 각을 다진 그녀를 지도해 준 ‘이대훈 천사교수님’은 일등 공신이다. 여기에 김선태·염창렬 시인과 문형태 화가 등 시집 출간 크라우드 편당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도움이 더해졌다.

이대훈 시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네 부모 모두 ‘딱딱한 가슴팍에 쓴 시’ 몇 편쯤은 간직하고 있을 거다. 곧 있으면 설날이다. 부모님이 마음에 담아 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드려라. 그것 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행복해 할 터다.

/김미은 문화1부장mekim@

## 기 고



박 안 수  
경제학박사·전 농협장흥군지부장

지난해 국민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때문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나라를 걱정해야 했다. 국가에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하는 데도 말이다. 나라꼴을 빗대 ‘헬(hell) 조선’, ‘이것도 나라냐’라는 탄식까지 나왔다. 여기에도 안톤 시나크가 말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를 더 추가해야만 할 것 같다.

달리 생각하면 국정농단 사태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는 물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경제 정의와 민주화로의 성장을 위하여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진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누구나 특정 조직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많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도자의 그릇이 그 자리에 합당한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

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자리는 조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민 모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 사례를 세계사를 통해 경험하고 보았을 것이다. 공자는 국가의 중요한 존립 요건을 군대와 식량,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들었다.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의 덕목은 “개인적인 역량·재능·기량,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시대정신(과 운명의 도움)을 받을 때 그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기업인 GE사 리더십 센터에서는 리더의 덕목을 경청(소통), 설령, 도용, 대화, 등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와 개헌에 따라 조기 대선이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드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해이다. 이 시대에 나라를 구할 메시아 같은 지도자

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최고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리더들이 가져야 덕목을 생각해 본다.

먼저 조직원과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나폴레옹은 “지도자인 리더는 국민에게 희망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살자는 싱가포르의 청사진과 함께 출선수범했다. 이 덕분에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음에도 싱가포르가 국민소득 6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필리핀의 많은 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현재의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현재 필리핀은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잘 살아한 국전에 파병까지 했던 예전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현재 국가와 조직은 매우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우리는 남북관계, 정치·경제 부문에서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현안이 많다. 기본적인 지식과 솔로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시대에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자를 책봉한 다음 훌륭한 군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수련했던 사실을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br>(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br>(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br>(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br>(FAX 227-9500)     |
| 정 지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br>(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